

架山城

100여 년에 걸친 호국의지
'삼중의 성'에 켜켜이 쌓았네



국방저널 기획 '성곽순례' 경북 칠곡군 가산산성

대구 팔공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가산산성은 아직 복원되지 않은 성곽이 대부분이지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찾는 이를 과거로의 여행으로 이끌곤 한다. 가산산성에 오른 국방저널 11월호 기획기사 '성곽순례'를 요약, 소개한다. 기사 전문은 국방저널 e북에서 만날 수 있다.

▼ 남문(진남문)을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 시간 넘게 올라가면 만나는 동문. 동문 안쪽에서는 성곽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문 밖으로 나오면 웅장하게 이어진 성곽이 눈에 들어온다.

외침 대비해 인조·숙종·영조에 걸쳐 완성

가산산성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에 있는 조선시대 산성으로 해발 약 901m인 가산 아래 계곡을 이용해 축조된 방어용 성곽이다. 내성과 외성, 중성으로 이뤄진 산성의 둘레는 문헌상 내성은 그 길이가 4710보, 중성은 비교적 짧은 602보, 외성은 3754보 정도로 나와 있다. 칠곡군의 실측조사 결과 11.1km, 면적은 2.2km로 비교적 대규모의 산성이다.

처음 축조된 것은 인조 18년(1640년)이었다. 경상도 관찰사 이명웅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조정에 건의, 장정 10만여 명을 동원해 시작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내성이며 이어 숙종 26년(1701년) 관찰사 이세재가 왕명을 받아 외성을 추가로 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조 17년(1741년) 관찰사 정익하가 내성 가운데에 중성을 쌓아 '삼중의 성'인 가산산성이 완성됐다. 가산산성에는 동·서·남·북 4대문과 중성문이 있으며 암문·수문·곡성·치성·포루 등 100여 개의 시설물과 관아·군영·마을 유적 등이 성내에 남아있다. 하지만 대부분 복원되지 않았거나 건물터만 남아 있어 아직도 발굴 조사와 복원이 진행 중이다.

4대문 중 가장 잘 복원돼 있는 '진남문'

가산산성의 현재 주 출입문은 남문인 '진남문'으로 산성의 4대문 가운데 가장 잘 복원돼 있다. 문의 형식은 아치형의 홍예문으로 185m의



동문에서 가까운 7암문 주변. 가산산성은 비교적 대규모 산성이라 그런지 암문이 여러 개 있다.



가산산성의 또 다른 볼거리 가산 바위. 대구광역시 전경이 한눈에 펼쳐져 가산산성을 찾는 이들은 꼭 한번쯤 들르는 곳이다.

가산산성의 주 출입문인 남문(진남문). 멋지게 복원돼 있고 바로 앞이 주차장이라 등산객이 아니라도 쉽게 구경할 수 있다.

양쪽 성벽과 함께 웅장하고 멋진 모습을 자랑한다. 주변에는 '가산산성지원센터'가 있다. 이곳을 지나면 성내로 들어가 가벼운 등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외성 중간을 가로지르는 코스라 성벽을 볼 수는 없다.

1시간 넘게 올라가다 보면 동문에 도착한다. 이곳도 홍예문이지만 성문 위에 세우는 망루인 문루는 없고 평평한 모습이다. 가까운 곳에 복원 공사 중인 수문과 성곽을 볼 수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내성에 건립된 지방관청인 관아 유적지를 만날 수 있다. 터만 남아 발굴 조사 중인 이곳에서는 관아의 중심건물과 부속시설 등 당시 유적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동문을 지나 내성으로 올라가면 중성문이 나오지만, 현재는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상태다. 성문이 무너지기 전 나타나는 내부 석조물의 배부름 현상(성곽 중간 부분이 위·아래에 비해 유독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어 위험해서다. 배부름 현상은 서문·북문에서도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가산 바위

가산산성의 또 다른 볼거리는 가산 바위에 올라 바라보는 산성의 모습이다. '가암'이라고도 불리는 가산 바위는 약 270㎡에 이르는 넓고 평탄한 바위. 대구광역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바위를 중심으로 뻗은 산성의 모습이 절경이다.

가산 바위에서 길을 따라가면 서문과 만날 수 있다. 사람이 거의 찾지 않아 잡초가 우거져 있고 성문 내부의 배부름 현상으로 '접근금지' 팻말이 놓여 있다. 이곳에서 조금 더 돌아가면 북문이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 온 등산객은 길을 잃기 십상이다. 다시 가산 바위로 돌아가 계곡을 따라가면 쉽게 북문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곳도 잡초가 무성하고 배부름 현상이 눈으로 보기에 심해 조속한 복원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중성문으로 가기 전 가산 방향으로 올라가면 산성 최고 지휘소인 상장대의 발굴 현장과 북포루·유선대를 만날 수 있다.

글=조진섭/사진=이경원 기자 ■ 편집=신연식 기자

